

## 고령사회와 마을

###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내 중고령층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 선 철 / 한신대초빙교수·사회설계연구소장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 일자리의 정년 연장 이외에 종래에 없던 새 일자리의 통로 개발이 시급하다. 마을 일(Community Work)은 우리 사회문제를 발생원인 일상생활권에서부터 해결하고 고령층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면서 가까운 생활지역에서 일·여가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 현재 중고령층이 동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중고령층의 참여와 역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애설계 프로그램 충실과 평생현역 선택지의 하나로 마을 일의 의미와 가치를 적극 개발·보급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칸막이로 분절되어 있는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사업을 융합하여 마을공동체~주민센터~사회적경제의 혁신에 걸친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주제어: 마을, 마을 일,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연계, 고령자 사회참여

## 1. 서론

인류는 역사의 대부분을 다른 종과 유사하게 자연에서 수렵 채집하는 유랑 생활을 하다가 1만년 전에 농업문명으로 정착생활을 하면서 마을을 탄생시켰다. 마을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인류사회의 기본조직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100여년 전까지만 해도 마을은 사회운영의 기본단위로 관혼상제·모내기 등을 두레·품앗이 방식으로 마을공동체가 협력하여 해결하는 훌륭한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근대 공업화와 함께 도시화·시장사회화 속에서 마을공동체는 해체되었다. 그런데 근래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를 연계하여 마을을 기본단위로 하여 사회문제를 발생원에서부터 해결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공동체를 회복하는 흐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 마을 일은 고령층 세대의 특성 및 근로욕구에 적합한 성격이 강하다. 고령층은 젊은 세대에 비해 신체능력은 뒤지지만 긴 인생의 사회적 경험과 지혜, 그리고 오랜 거주 경험에서 지역 사정에 밝아 마을사업에 강점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연계 사업은

공익성(사회공헌)과 수익성(생계비 확보)을 병행 추구하며 가까운 생활지역에서 일·가정·여가를 겸비한 유연근무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본고는 이러한 마을 일의 사회적 중요성과 고령층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중고령층 사회참여의 새 통로로서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연계 일자리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급격한 고령사회화 속에서 고령층의 사회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존 일자리의 정년 연장 이외에 종래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 통로 개발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마을 일이란 새로운 루트를 통해 중고령층이 평생현역으로 활약하고 그 존재가치를 복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중고령층 사회참여의 새 통로 :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 1. 고령사회에 맞는 평생현역사회 구축의 필요성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60년 55.3세에서 2010년 80.79세로 길어지고 장래 인생 100년 시대가 전망되고 있다. 누구나 인생이모작이 가능한 장수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생산력과 보건·의료 발전 덕분에 인류사의 일대 진보로 적극 평가해야 한다(佐々木一郎 1984).

그런데 이 고령층은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Case1. 고령층 능력의 최대 활용: 개인의 행복, 사회의 행복 -> 장수시대의 성공

Case2. 고령층 능력의 미활용: 개인의 불행, 사회의 불행 -> 장수시대 절반의 성공

우리 사회는 아쉽게도 Case2에 가까운 상황이다. 개인 차원에서는 평균 53세에 퇴직하고 재취업의 경우에도 경력 활용이 미흡한 임시·일용직, 생계형 자영업이 주요 일자리가 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4). 거칠게 표현하면 인생

100년 중에 30여년은 학생세대의 피부양자로 지내다 30~40여년 일한 후 다시 30여년을 고령세대의 피부양자가 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후 불안 뿐 아니라 고령자 스스로가 자신을 불필요한 부담자로 느껴 존재가치에 대한 고통을 가증시키고 있다. 나아가 사회를 지속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끈다.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2060년에 한국은 생산가능인구(15~64세) 1.2명이 노인 1명과 어린이 0.2명을 부양하는 1대1 부양시대로 진입한다고 한다(통계청 2011.12). 이 경우 현역세대의 부담은 한계를 넘어 '세대간 부양제도' 자체가 파탄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인생 후반부에 활약할 기회가 적은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오래 될수록 문제는 심각해지고 불행도 깊어질 것이다.

고령자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평생현역사회로 시급히 전환하여 개인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case1). 예를 들면 15세에서 74세까지 원칙적으로 모두 일하는 사회(佐々木一郎, 2003)가 그 하나일 것이다. 15세에서부터 대학생까지는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가하여 나름대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공헌하고, 고령세대도 최저 74세(전기고령자)까지는 일을 하여 생계비 상당 부분을 스스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옛 전통의 고차원적인 복원이 학생들의 체험·사회성 학습에 도움이 되고, 고령세대도 자립과 심신의 활력,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복권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린이 세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사회의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고령층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에 있다. 정부의 60세 이상 정년 연장과 재정 지원 일자리 확충은 필요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 속에 청년 실업문제와의 충돌과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대책에 추가하여 종래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 통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여기에서는 그러한 신규 일자리 창출 영역의 하나로 마을 일(community work)을 검토하고자 한다.

## 2.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사업의 적합성

인류(호모사피엔스)는 20만년전에 탄생 후 대부분의 기간을 다른 동물과 유사하게 자연에서 먹거리·자원을 수렵채집하는 유랑생활을 하다가, 1만년전에 식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사육하는 농업문명으로 전환하여 정착생활을 하면서

마을을 형성했다(데이비드 크리스천 외 2013). 마을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인류사회의 기본조직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100여년전만 해도 교통·통신의 제약 속에 마을은 사회운영의 ‘기본단위’ 역할을 수행했다. 그 전통마을은 봉건적 신분 불평등 등의 단점도 있지만, 동시에 마을 규약을 세우고 보통 일은 개인·가족 단위에서 완결하지만 관혼상제·모내기·치산치수 등의 큰 일은 두레·품앗이·계 등의 방식으로 주민들이 협력하여 해결하는 뛰어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근대 공업화와 함께 도시화·시장사회화 속에서 마을공동체(특히 도시)는 해체되었다. 그런데 근래 이 마을공동체를 오늘날에 맞게 고차원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구미의 Community Development, 일본의 마치즈쿠리(まちづくり), 한국의 마을만들기 등이 그것이다.

왜 다시 마을공동체의 복원일까. 그 이유는 첫째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은 마을을 ‘기본 단위’로 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물·식량·자원·에너지·지구온난화, 교육·문화·보건의료·복지, 주택·교통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 친환경생활양식, 생활습관병 등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문제의 발생원은 우리가 밤낮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마을이다. 따라서 이 문제 특성에 맞춰 마을을 기본단위로 하여 문제를 일차적으로 예방 혹은 해결하고, 나아가 문제의 규모에 따라 지역 → 국가 → 세계 차원으로 넓혀가는 ‘보충성 원칙(Subsidiarity Principle)’에 입각한 문제해결 방식이 필요하다. 유엔의 지방의제 21에서 내걸고 있는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마을·지역에서(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표현은 이를 상징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표 1>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의 유형을 요약한 것이다. 그 핵심을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종래에 이 사업은 소수 주민자치위원이 자원봉사 활동 방식으로 추진하여 주민참여가 적었다. 사회적경제는 기본적으로 이 자원봉사 활동 수준의 한계를 넘어 마을·지역 일 중에서 수익성이 있는 분야는 비즈니스 방식으로 전개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중에서 마을기업은 활동무대가 주로 마을 단위가 되고 사회적기업은 지역·전국 등 좀 더 광역적인 시장을 지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조직형태에 있어서 최근에는 주민들이 공동출자하는 협동조합 방식이 늘고 있다.

<표 1>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의 정의 및 유형

구분		정의	비고
마을공동체		주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체 공동체	서울시(2012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산재한 각종 특화지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안정행정부(2012년), 마을기업 육성시행지침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고용노동부(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기획재정부(2014년), 협동조합 기본법

이와 같이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연계사업은 사회 현안을 발생원에서부터 해결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새로운 주민자치를 통해 생활공동체를 회복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둘째는 이 사업이 고령층 세대의 심신 특성 및 근로욕구에 적합하다는 점이다. 마을의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마을장기종합계획을 세워 이 계획을 실천하는 사업화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종합적인 시점과 다양한 경험이다. 고령층은 젊은 세대에 비해 신체능력은 뒤지지만 긴 인생의 사회적 경험과 지혜, 그리고 오랜 거주 경험에서 지역 사정에 밝아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강점을 발휘하고 그 존재가치를 복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역사회에 정통한 토지를 가진 노현인(老賢人)이 많을수록 마을만들기는 성공한다는 일화는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이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병행 추구하는 사업으로서 고령층의 생계·사회공헌형 일자리로 적합하며, 가까운 생활지역에서 일·가정·여가를 겸비한 유연근무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마을 일의 사회적 중요성과 고령층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할 때 고령층 사회참여의 새 통로로서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연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때이다.

### Ⅲ. 중고령층의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참여 확대 방향

#### 1. 현 정책의 성과 및 과제

현 정책의 성과 및 과제를 양과 질 측면에서 개관하고자 한다.

첫째 양적 측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사회적경제 고용 규모는 임금근로자의 0.4%(6만9천명)로 추산되고 있다(머니투데이 2013.06.04.). 이 중에 중고령층 비중에 대한 상세 통계는 없지만, 서울시 마을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이 51.6세<sup>1)</sup>(마을·SE파트너·사회설계연구소 2012)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고령층 특히 여성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농어촌의 경우 도시에 비해 중고령층의 비중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신규영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양적으로 성장하고 특히 중고령층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선진제국과 비교할 경우 한국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전체 노동인구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유럽연합(EU) 6.5%, 한국 0.4%로 확인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적 면에 있어서도 한국은 획기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현실적으로 그 유망 인력이 중고령층임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특정한 일부 참여 수준을 넘어 광범한 중고령층이 새롭게 참여토록 하는 정책 유도가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질적 측면. 무엇보다 사회적경제의 취약한 자립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현 사회적기업 중에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곳은 20% 정도에 불과하다(김영배 2013). 그 원인으로 판로·마케팅·자금·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흔히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왜 이렇게 경영자원 확보가 어려운가를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개별 사업체의 자조노력 부족도 있지만 동시에 사업을 응원해 줄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조장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칸막이형 지원정책에 있다고 생각된다.

원래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는 근본적으로 한뫼음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

1) 2012년도 서울시 마을기업 61곳의 실태조사 결과.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비즈니스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을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으로 인큐베이팅하여 주민을 고용하고 상품을 생산하면 그 상품을 다시 지역에서 소비해 주는 생산~소비의 연계 선순환 구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마을공동체 따로 사회적경제 따로의 각개약진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 유사사업에 비용을 중복 지출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조성되지 않는 ‘정책적자’(政策赤字)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시 성북구는 상기 필요성을 절감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통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김영배 2013).

한국의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사업은 초기단계의 문제점을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본격단계로 진입해야 하며 그 중심 역할을 할 중고령층의 광범한 참여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과제 달성을 위해 아래에서는 중고령층의 자발적 참여와 사업화를 통합 지원하는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중고령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생애설계 프로그램

정부는 중고령층이 길어진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전부터 생애(노후)설계를 하고 해당 능력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sup>2)</sup>(관계부처합동 2014). 중고령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인생설계에서부터 지원하는 정책은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현재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교육은 개념·사례 소개 등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절실한 내 일로 와 닿지 않는 면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인의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는 인생설계를 바탕으로 한 교육으로 질적인 비약이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중고령층에 그치지 않고 원래 마을 주민 남녀노소가 마을학교에서 자기 인생설계를 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현하는 마을만들기 계획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기 정부 프로그램(예시)은 일과 금전 면의 취업·재무설계에 경사되어 있어, 다양한 주민이 대상인 마을학교 차원에서는 좀 더 인생단계(life

2) 생애설계 프로그램의 예시(3~5일 과정). ①개별·집단상담을 통한 경력진단. ②진로설계(경력개발, 2모작 직업, 취창업 정보, 사회공헌활동 등). ③개인별 경력관리 계획(향후 진로, 훈련 등 필요사항). ④노후 준비(건강·재무·여가·대인관계 등).

stage)론에 입각한 인생설계 프로그램으로 보편화해도 좋을 것이다. 첫째 인생 전개의 기본형을 이해하고 인생후반부 생활설계를 하도록 한다. 중고령이 되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차례차례 잃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퇴직과 함께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무대, 인간관계가 좁아진다. 또한 얼마 안 있어 자식들이 독립하여 품을 떠나는 급격한 생활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생활의 활력을 잃고 급격한 심신기능 저하(병)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더욱 나이가 들면 오랫동안 함께 한 배우자를 보내고 다시 싱글이 되어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잃게 된다(죽음). 이러한 인생 후반부의 인생전개 패턴을 고려하면서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하는 근본적인 성찰 속에 지금까지의 인생을 정리·집대성해 보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인생계획 만들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는 인생 후반부의 생활영역으로 ①내면 정신생활, ②가정생활, ③직장 근로 생활, ④마을·사회활동 생활, ⑤문화·스포츠 생활 등을 적절하게 조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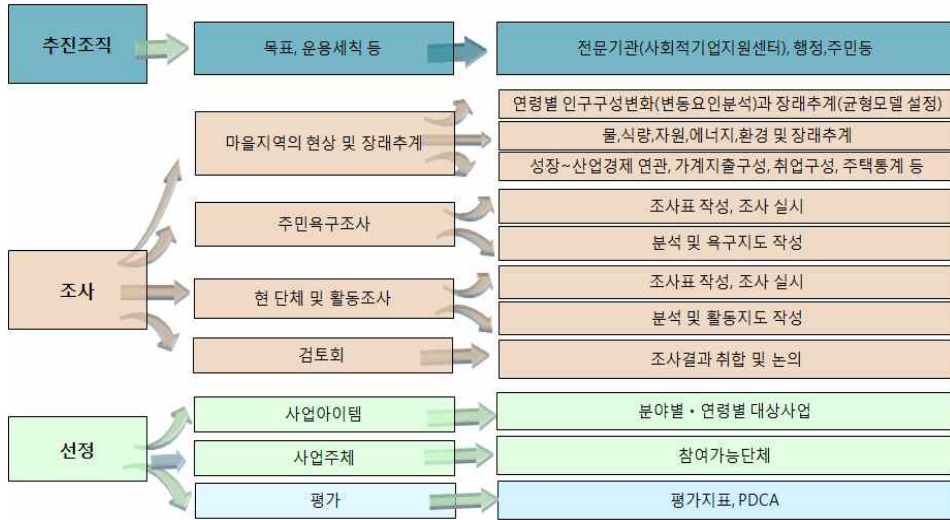
둘째 이와 동시에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의 가치, 자신의 경험활용 가능 여부, 근무조건 등을 검토하여 인생후반부의 활약 무대를 마을로 옮기기로 하고 퇴직 전부터 마을 일에 관여하면서 준비하는 선택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로(就勞)는 아니지만 평생학습시대를 맞아 지금까지 하고 싶었지만 미뤘었던 것을 마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우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건강증진의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선택도 할 수 있다.

### 3.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이러한 중고령층의 활동을 현재의 칸막이를 넘어 원스톱으로 안내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림 1> 마을조사 및 장기종합계획 수립





첫째 마을장기종합계획. 우리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의사에게 과학적인 진단·처방을 받아 실천한다. 마을만들기도 마찬가지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마을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마을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정선철 외 2011).

구체적으로 마을학교에서 전문지원팀이 마을의 연령별 인구구성, 교육·문화·복지, 물·도시농업·에너지·자원·자연환경, 주택·마을시설, 마을경제 및 취업구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하여 각 분야별로 주민과 해결 방향을 논의하는 공부모임을 연다. 나아가 마을의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령자까지를 대상으로 한 주민욕구 조사와 욕구지도를 만들고 이를 추진할 마을단체의 활동현황 및 과제 등도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총집약하여 마을주민의 생활의 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마을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지자체는 조례에 마을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마을별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고, 마을학교 교육도 전문강사의 다른 마을 선진사례 소개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주민들은 마을일이 자기 일로 진지하게 고민되지 않고,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자 해도 그 사업 아이템이 한없이 애매한 경우도 적지 않다. 마을장기종합계획 모델의 개발·제공이 절실한 시점이다.

둘째 사업화. 이 마을장기종합계획을 실천하는 사업화를 진행한다. <표 2>와 같이 주민생활의 다양한 필요를 분석해 보면 마을사업의 아이템은 육아·청소년 지원, 평생학습, 문화·예술·스포츠, 주민교류·관광, 빗물활용·하천정화, 도시농업·도농교류, 에너지 절약·신재생에너지 보급, 자원순환·공유·바이오매스 보급, 녹화·동네산 관리, 마을정보·교통, 마을은행·펀드 사업 등 무수히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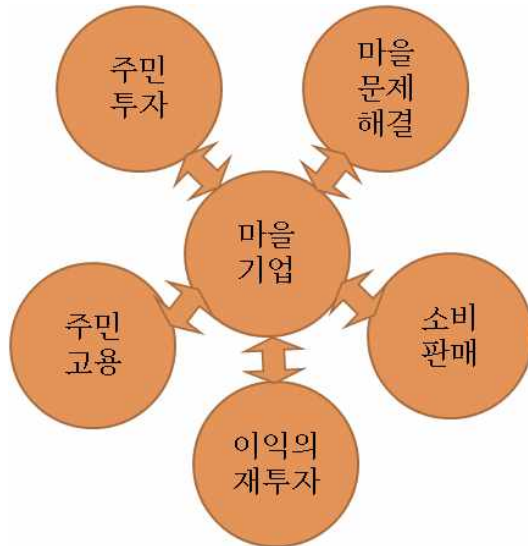
<표 2> 마을공동체·사회적 경제 사업아이템

생활시간	생활구성	마을공동체 (자원봉사활동)	사회적경제 (마을기·사회적기업·협동조합)
<필수생활시간> 10시간53분	수입(100%)	주민자치위원	사회적경제 직원
수면 7시간48분	소비(78.1%)	녹색소비	녹색소비·지역통화사업
식사 1시간47분	주거비(6.1%)	주택·마을시설정비	주거환경·공공시설개선사업
외모/건강관리 1시간18분	의복비(4.1%)	자원순환	자원순환·공유사업
	식비(17.5%)	산지직송, 급식활동	도시농업, 식품안전, 도농교류
<의무생활시간> 7시간56분	물·광열비(4.2%)	물순환,신재생 에너지 도입	빗물활용,하천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녹화, 동네산보전사업
일 3시간 46분	가사용품비(2.2%)	자원순환	자원순환, 바이오메스사업
가사노동 2시간10분	보건의료비(2.3%)	건강증진활동	고령자·장애인지원, 보건·의료사업
학습 11분	교육비(5.5%)	발달지원활동	육아·청소년지원, 평생학습사업
이동 1시간47분	교양오락비(7.9%)	문화·스포츠활동	문화·예술 스포츠사업
<여가생활시간> 5시간11분	교재비(5.1%)	주민교류활동	주민교류·관광사업
미디어이용 2시간20분	통신교통(10.7%)	지역정보·교통활동	지역정보, 지역교통사업
교제 47분	기타(12.5%)	안전한 마을만들기	방범·방재사업
종교/문화/스포츠 46분	저축(16.0%)	투자, 기금	커뮤니티뱅크, 펀드사업
취미/독서/유희 44분	세금(21.9%)	마을공동체조례	사회적경제조례

이 다양한 아이템 중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선 쉬운 일부부터 시작하여 사업성과를 내고 자신감과 신뢰감을 축적하면서 점차 난이도가 높은 사업에도 도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아가 사업의 시장성을 분석하여 비영리·영리로 최적 조합(Best Mix)하는 일이 중요하다. 마을사업 중에서 수익성 전망이 있는 아이템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인큐베이팅하여 마을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일자리도 제공하는 것이다. 이 때 마을기업은 동네 장사의 특성에 맞는 사업아이템을 선택하여 1동 1마을기업 형태로 육성하고, 도농교류·에너지·자원순환 등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아이템은 사회적기업 방식으로 육성한다.

셋째 사업체 인큐베이팅. 이러한 사업을 실제 추진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모임을 인큐베이팅한다. 사업체의 조직형태로서는 NPO·협동조합, 주식회사의 다

<그림 2> 조직형태 및 특징



양한 형태가 있고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협동조합 방식을 살펴본다. ①공동출자: 주민들의 공동출자를 통해 사업체를 특정 소수

소유가 아닌 마을의 공동조직으로 만든다. ②공동업무: 수익성이 있고 사업체 구성원의 강점을 살린 서비스를 생산·판매한다. ③공동근로: 유경험자 및 중고령층, 주부, 청년 등의 재교육을 통해 직원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일·가사·여가가 병행 가능한 유연근무제를 채택한다. 동시에 자원봉사활동 시스템도 도입한다. ④마을재투자: 초기에는 경영 안정화·자립이 최대 과제이지만, 점차 수익의 일정 부분을 마을에 환원하는 재투자 방식을 추진한다.

넷째 주민센터. 우리가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서는 주2~3회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다. 이를 1만명 단위의 마을로 환산하면 매일 3천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이 필요하다(정선철 2012).

주민센터는 이러한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주민들의 주민센터 이용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가깝고 싸지만 프로그램의 질이 낮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마포구 2009).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 질의 향상, 개관시간 연장 및 마을간사 채용, 주민자치위원의 업무 태만시 3진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늘고 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문화·교양·학습(도서관), 스포츠, 케어, 환경 등 종합 프로그램을 갖춰 마을의 다양한 세대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향유하고 또한 코디네이터들은 의식적으로 마을의 세대간 교류를 촉진하는 융합형 프로그램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본 인생설계·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주체 및 기관이 모여 상호조정·협력하는 명실상부한 마을연결거점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도 한정된 지원센터·행정인력으로 관내 읍면동을 제대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읍면동의 주민센터가 마을의 일차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기초 및 광역지자체가 통합지원팀을 만들어 뒷받침하는 보충성 원칙에 입각한 지원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 IV. 결론

지금까지 중고령층 사회참여의 새 통로로서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연계 일 자리를 살펴봤다. 그 결과 마을 일은 우리 사회문제를 발생원에서부터 해결하고 고령층의 특성 및 근로 욕구에 적합한 장점이 있으며 실제 현재 중고령층이 동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앞으로 보다 광범위한 중고령층이 마을 일에 참여하고 사업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마을학교 등에서 생애(노후)설계 프로그램의 충실과 현재 칸막이로 분절되어 있는 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 사업을 융합하여 마을계획~사업화~자립지원 생태계 조성~주민센터의 혁신에 걸친 통합적인 지원서비스가 필요함을 밝혔다.

현재 지자체 협의회가 복지 디폴트 선언을 언급할 정도로 복지재정은 악화되고 그만큼 중고령층이 평생현역으로 일하는 사회로의 전환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고령층의 마을 일 참여에 대한 기초 연구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기회가 된다면 특정 모델지역을 선정하여 생애설계 프로그램과 통합지원서비스 방향 등을 심층 조사 연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2014.9). 장년고용 종합대책(안).  
 김영배(2013.4). 동네안에 국가있다. 백산출판사.  
 데이비드 크리스천 외(2013.9). 빅히스토리. 해나무.  
 마을·SE파트너·사회설계연구소(2012.12). 2012년도 서울시 마을기업 경영지원 종합보고서, .  
 마포구(2009.12). 마포구 사회조사.  
 정선철 외(2011.12).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창업가이드. 사회설계연구소.  
 정선철 외(2012.12). 고령자의 행복한 생활을 지원하는 고령자 공동주택 사업연구. 삶과 돌봄·사회설계연구소  
 통계청(2011.12). 장래인구추계.  
 佐々木一郎(1984.2), 「高齢者のフルに生きるまちづくり」、調査季報80.  
 佐々木一郎(2003), 横浜・神奈川の未来を拓くまちづくり研究、横浜市立大学まちづくりコース.